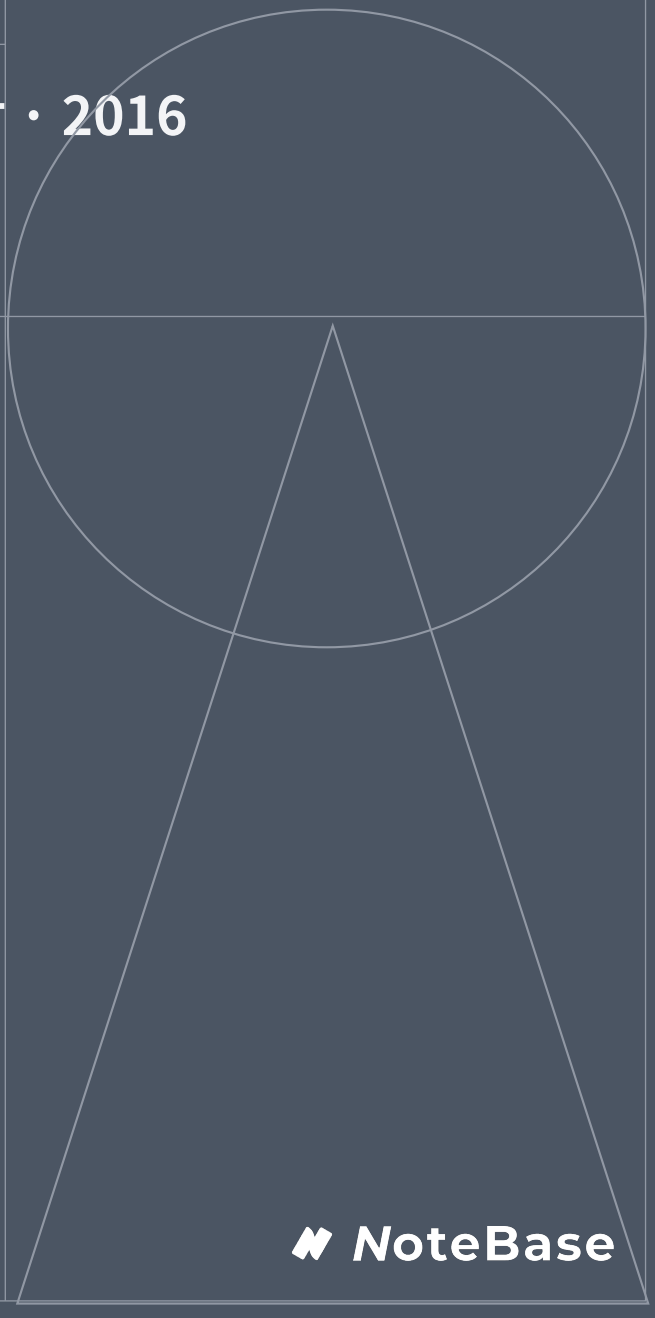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영학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영학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경영학 · 2016

문 1.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성과관리 수단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목표관리기법(Management By Objective ; MBO)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달성 기간의 명시

② 개인 목표의 구체화를 위한 과정

③ 상사와 조직에 의한 하향식 목표 설정

④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및 정보의 피드백 제공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목표관리기법(MBO)의 핵심 특징인 참여적 목표설정, 목표의 구체성, 기간 명시, 피드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BO는 상사와 부하가 함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결과로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MBO의 결정 차이축은 상향식·참여적 목표설정과 자기통제 중심 관리 여부이다.
키워드는 참여, 구체적 목표, 기간 설정, 성과 피드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목표달성 기간의 명시는 MBO의 일반적 특징이다. 목표는 일정한 평가기간 안에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간이 분명해야 한다.

② O
개인 목표의 구체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도 맞다. MBO는 조직목표를 개인 단위의 구체적 목표로 연결하여 실행과 평가가 가능하게 만든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사와 조직에 의한 하향식 목표 설정"이다.
MBO는 일방적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상사와 부하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목표 설정이 핵심이다.
올바르게는 "상사와 부하가 함께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한다"이다.

④ O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및 정보의 피드백 제공은 MBO의 중요한 요소이다. 목표 대비 실적을 확인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하향식"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MBO도 조직목표와 연계되므로 위에서 내려오는 관리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은 목표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참여적 합의와 자기통제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BO 관련 선지는 먼저 목표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를 본다. 참여와 합의, 구체적 목표, 기간, 피드백이 나오면 맞는 방향이고, 일방적 하향식 지시만 강조하면 틀린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MBO는 참여로 목표를 세우고 기간 안에 성과를 피드백하는 관리기법이다.

NoteBase

문 2. 조직 내에서 권한(authority)과 권력(pow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은 조직 내 직위에서 비롯된 합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②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다.

③ 관리자는 종업원에게 권한을 이양할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사장이 누구를 만날지, 언제 만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비서는 권력은 작으나 권한은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직 내 공식적 권한과 비공식적 영향력인 권력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권한은 조직 내 직위에서 부여되는 합법적 의사결정권이다.
권력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실제 영향력으로서 직위가 없어도 정보, 전문성, 접근 통제 등으로 생길 수 있다.
권한은 공식성, 권력은 영향력의 크기가 핵심 구별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권한은 조직이 직위에 부여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O: 권력은 권한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많은 공식 권한이 없어도 전문성, 정보, 인간관계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O: 권한 위양에서는 권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분명히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
④ X: 틀린 표현은 "권력은 작으나 권한은 크다"이다. 비서는 공식 직위상 권한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최고경영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므로 실제 권력은 클 수 있다. 올바르게는 "권한은 작으나 권력은 크다"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권한과 권력을 모두 남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만 외우면 ④의 방향을 뒤집기 쉽다. 출제자는 비서의 사례로 공식 직위에서 오는 권한과 비공식적 영향력인 권력을 서로 바꿔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위가 부여한 공식 권리인지 먼저 본다. 공식 직위에서 나오면 권한이고, 직위와 무관하게 사람이나 정보, 자원 접근을 통제해 영향력을 미치면 권력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권한은 직위에서 나오고, 권력은 영향력에서 나온다.

NoteBase

문 3. 혁신적인 신제품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의 기존 사용습관에 부합할수록 신제품의 수용 속도는 느려진다.

② 기존 제품대비 상대적 이점이 크고, 시험사용이 가능한 경우 신제품의 수용 속도는 빨라진다.

③ 제프리 무어(Geoffrey Moore)는 혁신수용이론의 조기수용층(early adopters)과 조기다수층(early majority) 사이에 캐즘(chasm)이라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로저스(E. Rogers)가 주장한 혁신수용이론(innovation-diffusion theory)은 혁신수용 속도에 따라 소비자를 혁신층(innovators), 조기수용층(early adopters), 조기다수층(early majority), 후기다수층(late majority), 지연층(laggards)으로 구분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저스의 혁신확산이론에서 수용 속도 결정 요인과 수용자 집단 분류, 그리고 무어의 캐즘 개념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로저스(E. Rogers)는 혁신확산이론을 제시하고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험사용 가능성, 관찰가능성이 수용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제프리 무어(Geoffrey Moore)는 초기수용층과 초기다수층 사이에 시장 확산의 단절인 캐즘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적합성(compatibility)은 기존 가치관, 경험, 사용습관과 잘 맞을수록 수용이 빨라지는 성질이다.
시험사용 가능성(trialability)은 먼저 써 볼 수 있을수록 불확실성이 줄어 수용이 빨라지는 성질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기존 사용습관에 부합할수록 신제품의 수용 속도는 느려진다"이다. 적합성이 높으면 소비자가 제품을 덜 낯설게 느끼므로 수용 속도는 빨라진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의 기존 사용습관에 부합할수록 신제품의 수용 속도는 빨라진다"이다.
② O: 상대적 이점이 크면 기존 대안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식되고, 시험사용이 가능하면 구매 전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두 요인은 모두 신제품 수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설명으로 맞다.
③ O: 무어는 로저스의 수용자 범주를 실무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early adopters와 early majority 사이에 캐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술수용이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단절 구간을 말하므로 옳다.
④ O: 로저스는 수용 시점의 빠르기에 따라 소비자를 혁신층, 조기수용층, 조기다수층, 후기다수층, 지연층으로 구분하였다. 혁신수용이론의 대표적 분류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적합성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선지이다. 수험생이 "혁신적일수록 기존 습관과 달라야 한다"는 인상 때문에 적합성이 낮을수록 더 빨리 퍼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확산이론에서는 기존 사용방식과 잘 맞을수록 채택 장벽이 낮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혁신확산 문항은 먼저 요인의 방향을 확인하면 된다.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사용 가능성, 관찰가능성은 수용을 촉진하고 복잡성은 수용을 늦춘다. 인물 문장이 나오면 로저스는 수용자 분류와 확산 요인, 무어는 캐즘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로저스는 확산 요인과 5개 수용자 집단, 무어는 조기수용층과 조기다수층 사이의 캐즘이다.

NoteBase

문 4. 수직적 통합전략(vertical integ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품생산에서 유통까지 수직적 활동분야의 참여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각화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다.

② '부품업체→조립업체→유통업체'의 과정에서 조립업체가 부품업체를 통합하는 것은 전방통합이다.

③ 여러 단계의 시장거래를 내부화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④ 수요독점, 공급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불안정은 수직적 통합을 통해 피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직적 통합의 의미와 전방통합·후방통합의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직적 통합은 기업이 원재료·부품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가치사슬의 앞뒤 단계를 내부로 편입하는 전략이다.
전방통합은 현재 기업보다 유통·판매·고객 쪽의 다음 단계를 통합하는 것이고, 후방통합은 공급업체·원재료 쪽의 이전 단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수직적 통합은 거래를 내부화해 거래비용, 협상 불안정, 이중마진 문제를 줄이려는 관련 다각화 성격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부품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를 기업 내부로 가져오는 것이 수직적 통합의 핵심이므로 옳다. 제품·시장과 무관한 무관련다각화가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범위를 넓히는 관련 다각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② X
'조립업체가 부품업체를 통합하는 것은 전방통합이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조립업체 입장에서 부품업체는 자신보다 앞선 공급 단계이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은 후방통합이다. 올바르게는 '조립업체가 부품업체를 통합하는 것은 후방통합이다'가 된다.

③ O
수직적 통합은 여러 단계의 시장거래를 기업 내부거래로 바꾸므로 거래단계마다 발생하는 거래비용이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시장거래를 내부화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④ O
수요독점과 공급독점이 맞서는 시장에서는 가격 협상이 불안정해지기 쉽다. 수직적 통합을 하면 외부 거래가격을 둘러싼 갈등을 내부 이전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이런 가격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의 방향을 기업 기준으로 보지 않고 공급사슬의 화살표만 따라가며 거꾸로 외우는 점이다. ②는 '부품업체'가 조립업체의 앞단계 공급자라는 사실만 잡으면 바로 후방통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준 기업을 정한 뒤 통합 대상이 공급자 쪽이면 후방통합, 유통·판매자 쪽이면 전방통합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수직적 통합의 효과는 거래 내부화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가격불안정 완화, 이중마진 축소의 관점에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급자 쪽으로 가면 후방, 유통·고객 쪽으로 가면 전방이다.

NoteBase

문 5. 어떤 기업이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원가는 감소하였으나 제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신기술 도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② 효과적이지 않지만 효율적이다.

③ 효과적이지만 효율적이지 않다.

④ 효과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분하여 목표 달성 여부와 자원 활용 성과를 따로 판단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효과성: 조직이 세운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를 보는 개념이다. 결정 차이축은 목표 달성 여부이다. 키워드는 매출목표 달성이다.
효율성: 주어진 자원으로 더 많은 산출을 내거나 같은 산출을 더 적은 비용으로 내는 정도이다. 결정 차이축은 투입 대비 산출이다. 키워드는 생산량 증가와 원가 절감이다.
이 사례에서는 매출목표 미달로 효과성은 낮고, 생산량 증가와 원가 감소로 효율성은 높다.

선지별 해설

① X: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효과적'이다. 올바르게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효율적이다'이다.
② O: 매출목표는 달성하지 못해 효과성은 낮지만, 생산량은 늘고 생산원가는 줄어 효율성은 높다.
③ X: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므로 효과적이지 않다. 반대로 생산량 증가와 원가 감소는 효율성 향상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효과적'과 '효율적이지 않다'이다. 올바르게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효율적이다'이다.
④ X: 효과성은 낮지만 효율성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효율적이지도 않다'이다. 올바르게는 '효과적이지 않지만 효율적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량 증가와 원가 절감이 보이면 곧바로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효과성은 매출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효율성은 비용 대비 생산성과 같은 과정 성과를 기준으로 보므로 둘을 분리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공식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해 효과성을 판단한다. 그다음 생산량, 시간, 비용, 원가 같은 투입 대비 산출 지표를 보고 효율성을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효과성은 목표 달성, 효율성은 비용 대비 산출이다.

NoteBase

문 6. 서비스 단계별 '고객의 행동, 종업원의 행동,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를 가시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플로우 차트(flow chart)는?

① 피쉬본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

② LOB(Line of Balance)

③ 간트 차트(Gant Chart)

④ 서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비스 설계 도구 중 서비스 청사진과 다른 관리 도구의 용도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 행동, 접점 종업원 행동, 지원 프로세스를 가시선과 상호작용선으로 나누어 서비스 전달 과정을 시각화한 도구이다.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문제의 원인을 가지처럼 분해하는 원인분석 도구이다.
LOB는 반복 생산이나 반복 공정의 진도와 균형을 관리하는 일정통제 도구이다.
간트 차트는 작업별 시작과 종료 시점을 막대로 나타내는 일정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피쉬본 다이어그램은 문제 결과와 원인 범주를 연결해 원인을 찾는 도구이다. 서비스 단계를 고객 행동, 종업원 행동, 지원 프로세스로 나누는 흐름 차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가시선을 기준으로 서비스 단계를 나누어 제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올바르게는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원인분석 도구'이다.

② X
LOB는 Line of Balance로 반복적 작업이나 생산 공정의 계획 대비 진도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서비스 접점 활동을 고객과 종업원 기준으로 분리해 보여 주는 도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고객의 행동, 종업원의 행동,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올바르게는 '반복 공정의 일정과 진도 균형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③ X
간트 차트는 시간축 위에 작업 일정을 막대로 표시하는 도구이다. 서비스 전달 과정의 가시선이나 지원 프로세스 구분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가시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업무별 일정과 기간을 시간축에 표시한다'이다.

④ O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단계별로 고객 행동, 접점 종업원 행동, 후방 지원 활동을 구분하고, 특히 가시선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보이는 활동과 보이지 않는 활동을 나누어 표현한다.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서비스 청사진도 흐름 차트의 형태를 띠므로 간트 차트나 LOB처럼 '과정을 그리는 도구'라는 공통점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어는 '가시선'이며, 고객에게 보이는 접점 활동과 보이지 않는 지원 활동을 나누는 도구는 서비스 청사진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 설계 문제에서 고객 행동, 접점 종업원 행동, 후방 지원 활동, 가시선이 함께 나오면 먼저 서비스 청사진을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원인분석이면 피쉬본, 일정표이면 간트 차트, 반복 공정 진도관리이면 LOB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가시선으로 고객 접점과 지원 활동을 나누면 서비스 청사진이다.

NoteBase

문 7.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전후 순이익은 변화가 없다)

① 주식분할 후 주당 순이익이 감소한다.

② 주식배당 후 주식의 액면가는 변화가 없지만, 주식분할 후 주식의 액면가는 감소한다.

③ 주식배당 후 주당 순이익은 변화가 없다.

④ 주식배당 후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지만, 주식분할 후 이익잉여금은 변화가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이 주당순이익, 액면가,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서 무상으로 신주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순이익 총액은 같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주식분할은 자본금 총액을 바꾸지 않고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1주의 금액을 더 잘게 나누는 것이다. 순이익 총액은 같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하고 액면가는 낮아진다.
정리하면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액면가는 그대로이며, 주식분할은 이익잉여금 변화 없이 액면가만 낮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주식분할은 순이익 총액은 그대로인데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② O
주식배당은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바꾸지 않고 신주를 배당하는 것이므로 액면가는 변하지 않는다. 반면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쪼개는 것이므로 주식의 액면가는 감소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주당 순이익은 변화가 없다"이다. 주식배당 후에는 순이익은 그대로이고 주식 수만 늘어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주식배당 후 주당 순이익은 감소한다"이다.

④ O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므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주식분할은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가 아니라 주식 수와 액면가만 조정하므로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모두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공통점 때문에 ③처럼 주당순이익 변화까지 같지 않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순이익 총액은 그대로이고 주식 수만 늘어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엇이 바뀌는지 자본 항목별로 나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 주식배당이고, 액면가를 낮춰 주식 수를 늘리면 주식분할이다. 그다음 순이익 총액은 그대로라는 점을 두고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 감소, 주식분할은 액면가 감소, 둘 다 주당순이익 감소이다.

NoteBase

문 8. 생산시설 배치(facility layou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품형 시설배치(product layout)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작업순서에 따라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공정형 시설배치(process layout)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고 범용기계 설비의 배치에 많이 이용된다.

③ 항공기, 선박의 생산에 효과적인 생산시설 배치의 유형은 고정형 시설배치(fixed-position layout)이다.

④ 제품형 시설배치는 재공품 재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작업기술이 복잡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품형 시설배치, 공정형 시설배치, 고정형 시설배치의 특징과 적용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품형 시설배치는 소수 품목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하기 위해 작업순서에 따라 설비를 흐름형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공정형 시설배치는 기능이 같은 설비를 묶어 두고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이다.
고정형 시설배치는 제품은 한곳에 고정해 두고 사람, 설비, 자재가 제품 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품형 시설배치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정 순서대로 설비를 배열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② O
공정형 시설배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고 기능별 범용설비를 배치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③ O
항공기와 선박은 크고 이동이 어려워 제품을 고정한 상태에서 인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고정형 시설배치가 적합하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재공품 재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작업기술이 복잡하다"는 표현이다.
제품형 시설배치는 흐름이 일정하고 작업이 표준화되어 재공품 재고가 대체로 낮고 작업기술도 비교적 단순하다.
올바르게는 "제품형 시설배치는 재공품 재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작업이 표준화되어 비교적 단순하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품형과 공정형의 특징을 서로 뒤바꾸면 ④를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재공품 재고가 높고 작업 경로가 복잡한 쪽은 공정형이고, 흐름이 일정하고 표준화된 쪽은 제품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량과 품종을 본다. 소품종 대량생산이면 제품형, 다품종 소량생산이면 공정형, 제품 자체가 커서 움직이기 어렵다면 고정형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제품형은 흐름식·대량생산·저재공, 공정형은 기능별·다품종 소량·범용설비, 고정형은 제품고정·대형품 생산이다.

NoteBase

문 9.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 군집표본추출법, 층화표본추출법은 확률표본추출방법에 해당한다.

②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미리 할당된 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할당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에 해당한다.

③ 조사자가 표본선정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자 임의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이다.

④ 모집단을 서로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소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각 소그룹별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는 방법은 판단표본추출방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본추출방법을 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로 구분하고, 층화표본추출법과 판단표본추출법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률표본추출은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알 수 있도록 무작위 절차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확률표본추출은 조사자의 편의, 판단, 할당기준 등에 따라 표본을 뽑아 선택확률을 알기 어려운 방법이다.
층화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서로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층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추출하는 방법이다.
판단표본추출은 조사자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대상을 주관적으로 고르는 비확률표본추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 군집표본추출법, 층화표본추출법은 모두 무작위 절차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확률표본추출방법이다.
② O: 할당표본추출은 성별, 연령 등 미리 정한 비율만 맞춰 표본을 채우는 방식이므로 각 요소의 선택확률이 통제되지 않는 비확률표본추출이다.
③ O: 편의표본추출은 조사자가 접근하기 쉽고 조사하기 편한 대상을 임의로 고르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④ X: 틀린 표현은 "판단표본추출방법"이다. 모집단을 서로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소그룹에서 단순무작위추출하는 방법은 층화표본추출법이다. 판단표본추출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표본을 고르는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소그룹으로 나눈 뒤 각 집단에서 무작위로 뽑는다는 층화표본추출의 정의를 제시해 놓고 마지막 용어만 판단표본추출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할당표본추출과 층화표본추출도 둘 다 집단 비율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혼동하기 쉽지만, 할당은 비율만 맞추고 무작위추출이 아니며 층화는 각 층에서 무작위추출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를 보면 먼저 무작위추출 여부를 확인한다. 무작위 절차가 있으면 확률표본추출 쪽으로, 조사자의 편의·판단·할당기준으로 고르면 비확률표본추출 쪽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모집단을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 다시 무작위로 뽑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층화표본추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층화는 층을 나누고 무작위로 뽑는 방법이고, 판단은 조사자가 대표적이라고 보고 고르는 방법이다.

NoteBase

문 10. A기업은 8월에는 제품 2천 4백개를 생산했으며, 9월에는 2천개를 생산했다. 8월 한 달 동안 풀타임(160시간/월) 직원 6명과 파트타임(100시간/월) 직원 4명이 근무했다. 9월 한 달 동안 풀타임(160시간/월) 직원 6명과 파트타임(40시간/월) 직원 2명이 근무했다. A기업의 8월 대비 9월 '직원 근무 시간당 생산성'의 변화율(%)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17.65

② -1.76

③ 8.97

④ 15.84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원 근무 시간당 생산성을 월별로 계산한 뒤, 그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8월 생산량: 2,400개
- 8월 총근무시간: 풀타임 6명 × 160시간 + 파트타임 4명 × 100시간 = 1,360시간
- 9월 생산량: 2,000개
- 9월 총근무시간: 풀타임 6명 × 160시간 + 파트타임 2명 × 40시간 = 1,040시간
- 구해야 할 값: 8월 대비 9월 직원 근무 시간당 생산성의 변화율

사용할 공식

직원 근무 시간당 생산성은 생산량 ÷ 총근무시간이다. 변화율은 (새 값 - 옛 값) ÷ 옛 값 × 10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월별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근무 시간 1시간당 산출량의 증감 비율을 묻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8월 생산성은 $2400 \div 1360 = 1.7647$이다.
2. 9월 생산성은 $2000 \div 1040 = 1.9231$이다.
3. 변화율은 $\frac{1.9231 - 1.7647}{1.7647} \times 100 \approx 8.974\%$이다.
4.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8.97%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7.65는 생산량 감소율 (2000 − 2400) ÷ 2400 × 100만 본 값에 가깝다. 문제는 생산량 변화율이 아니라 시간당 생산성 변화율을 묻는다. 틀린 값은 -17.65이고, 올바르게는 8.97%이다.

② X

- -1.76은 8월 생산성 값 1.7647을 부호만 바꾼 수준의 오답이다. 변화율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중간 생산성 수치를 답으로 착각한 것이다. 틀린 값은 -1.76이고, 올바르게는 8.97%이다.

③ O

- 8월 생산성은 1.7647, 9월 생산성은 1.9231이므로 변화율은 약 8.974%이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8.97%가 되어 맞다.

④ X

- 15.84는 두 생산성의 차이 0.1584에 100을 곱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변화율은 단순 차이가 아니라 반드시 8월 생산성으로 나누어 비율화해야 한다. 틀린 값은 15.84이고, 올바르게는 8.97%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량 변화율과 생산성 변화율을 혼동하기 쉽다. 또 9월과 8월의 생산성 차이 0.1584를 바로 퍼센트로 바꾸거나, 분모에 8월 생산성 대신 다른 값을 넣으면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성 변화 문제는 먼저 각 기간의 생산성을 생산량 ÷ 총투입시간으로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새 값 - 옛 값) ÷ 옛 값 × 100을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생산성은 산출량 ÷ 투입량이고, 변화율은 차이 자체가 아니라 옛값 대비 비율이다.

NoteBase

문 11. 직무만족 및 불만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성향은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자기평가이다.

②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역할 과다를 경험한 사람들의 직무만족이 높다.

③ 직무만족이란 직무를 통해 그 가치를 느끼고 업무 성취감을 느끼는 긍정적 감정 상태를 말한다.

④ 종업원과 상사 사이의 공유된 가치관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킨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무만족의 개념과 직무만족·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를 평가한 결과 나타나는 긍정적 감정 상태이다.
직무불만족은 직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역할 모호성·역할 갈등·역할 과다는 대표적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대체로 직무만족을 낮춘다.
종업원과 상사 사이의 가치관 공유와 긍정적 정서는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직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 성향은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자기평가'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자기평가는 직무만족을 높이고, 직무불만족과 더 관련되는 것은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자기평가이다.
② X: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역할 과다는 직무 수행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직무만족을 높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직무만족이 높다'이고, 올바르게는 '직무만족이 낮아지기 쉽다'이다.
③ O: 직무만족은 직무를 통해 가치와 성취를 느끼는 긍정적 감정 상태를 뜻하므로 옳다. 직무에 대한 평가 결과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종업원과 상사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이 있으면 관계의 일관성과 신뢰가 높아져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틀린 표현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킨다'이고, 올바르게는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긍정적'이라는 단어만 보고 좋은 성향이 불만족을 키운다고 거꾸로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②는 역할 스트레스 요인을 직무몰입이나 도전감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④는 가치관 공유를 갈등의 원인처럼 읽으면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무만족 문제는 먼저 '만족의 정의'와 '만족을 높이는 요인인지 낮추는 요인인지'를 분리해서 본다. 긍정적 정서·긍정적 자기평가·가치관 공유는 만족 증가 쪽으로, 역할 모호성·갈등·과다는 만족 저하 쪽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직무만족은 긍정적 감정 상태이고, 역할 스트레스는 만족을 낮춘다.

NoteBase

문 12.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② 암묵적 지식보다 명시적 지식이 중요하다.

③ 경험이나 지혜도 인적자원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④ 논리적 지식(Know-Why)과 정보적 지식(Know-Who)이 중요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시되는 인적자원의 핵심이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 협업, 네트워크 역량이라는 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명시적 지식은 문서나 매뉴얼처럼 형식화하여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다.
암묵적 지식은 경험, 숙련, 직관처럼 사람 안에 축적되어 쉽게 문서화되지 않는 지식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암묵적 지식과 이를 공유하는 협업 능력,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know-who가 특히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1번: O.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진 지식을 조직 안에서 공유하고 결합해야 성과가 커지므로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도 중요한 인적자원 요소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암묵적 지식보다 명시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복제와 문서화가 쉬운 명시적 지식보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암묵적 지식의 전략적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된다. 올바르게는 '명시적 지식보다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이 더 크다'이다.
3번: O. 경험과 지혜는 사람에게 체화된 암묵적 지식이므로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포함된다.
4번: O. know-why는 원리와 인과를 이해하는 지식이고 know-who는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관계적 지식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해 둘 다 중요하므로 선지의 취지는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의 중요도를 뒤집으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2번에서 두 개념의 우열을 바꾸어 제시해 수험생이 문서화 가능한 지식을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는지를 노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식기반사회, 인적자원, 경쟁우위가 함께 나오면 먼저 문서화 가능한 지식인지 사람에게 체화된 지식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협업 능력과 know-who 같은 네트워크 역량을 함께 떠올리면 정답 판단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지식기반사회는 명시지보다 암묵지, 개인 작업보다 협업, 정보 자체보다 know-who를 중시한다.

NoteBase

문 13. 소비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 일반대중까지 폭넓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신제품 혁신과정에 초대하여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은?

① 클라우드(cloud) 컴퓨팅

② 크라우드(crowd) 소싱

③ MOT(Moment of Truth)

④ 오프-쇼어(off-shore) 파이낸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제품 혁신 과정에 외부 대중이나 내부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개방형 혁신 개념인 크라우드 소싱과 다른 경영 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크라우드 소싱은 소비자, 직원, 일반 대중처럼 폭넓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업 활동에 끌어오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대중 참여, 아이디어 공모, 개방형 혁신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으로 서버,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같은 IT 자원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컴퓨팅 자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다.
MOT는 고객이 기업이나 서비스와 접촉하면서 품질을 체감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키워드는 고객 접점, 서비스 경험이다.
오프쇼어 파이낸싱은 해외 금융시장이나 해외 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금융 방식이다. 키워드는 해외 자금조달, 국제금융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기술·운영 방식이다. 틀린 부분은 신제품 혁신에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초대하는 정책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컴퓨팅 인프라를 외부 서비스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② O: 크라우드 소싱은 소비자뿐 아니라 직원,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모아 제품 개발과 혁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므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MOT는 Moment of Truth로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판단하는 접점 순간을 뜻한다. 틀린 부분은 혁신 과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고객 접점에서 인상이 형성되는 서비스관리 개념이다.
④ X: 오프쇼어 파이낸싱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틀린 부분은 다수 사람의 아이디어를 신제품 혁신에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해외 금융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과 2번은 cloud와 crowd의 철자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영어 단어의 형태가 아니라 핵심 기능을 묻는다. 컴퓨팅 자원 제공이면 클라우드이고, 대중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수집이면 크라우드 소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문에서 여러 사람의 참여, 아이디어 공모, 혁신 가능성 제고가 보이면 먼저 개방형 혁신 계열 개념인지 판단한다. 사람을 모으는지, 기술 자원을 제공하는지, 고객 접점 경험을 말하는지, 해외 자금조달을 말하는지로 선지를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crowd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cloud는 컴퓨팅 자원을 빌리는 것이다.

NoteBase

문 14. 마이어스(C. Myers)의 자본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따를 경우,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금 조달방식은?

① 회사채

② 내부유보자금(유보이익)

③ 우선주

④ 보통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마이어스의 자본조달순서이론은 정보비대칭 때문에 기업이 내부유보자금, 부채, 주식의 순서로 자금을 선호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마이어스의 자본조달순서이론: 외부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이 클수록 발행비용과 저평가 위험이 적은 자금부터 조달한다고 본다.
내부유보자금: 별도 증권발행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가장 우선한다.
부채조달: 내부자금이 부족할 때 그다음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자기자본조달: 정보비대칭에 따른 저평가 문제가 커서 가장 후순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회사채는 부채조달수단이므로 내부유보자금 다음 단계에서 고려한다. 틀린 표현은 회사채를 가장 선호한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내부유보자금이 먼저이고, 회사채는 그다음이다.
② O. 내부유보자금(유보이익)은 외부에 신호를 주거나 저평가를 감수하며 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선호된다.
③ X. 우선주는 외부 자기자본성 자금조달수단이므로 내부유보자금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우선주가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우선주는 내부유보자금보다 후순위이며, 이론의 기본 순서는 내부자금 다음 부채, 마지막이 주식이다.
④ X. 보통주는 정보비대칭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커서 자본조달순서이론에서 가장 덜 선호된다. 틀린 표현은 보통주를 가장 선호한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보통주는 최후의 조달수단이다.

오답 포인트

회사채나 우선주를 보면서 외부조달수단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순위라고 오해하기 쉽다. 이 이론의 기준은 안정성 자체가 아니라 정보비대칭에 따른 발행비용과 저평가 위험이므로, 내부유보자금이 항상 가장 앞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마이어스의 자본조달순서이론이 보이면 먼저 내부유보자금 여부를 확인한다. 없으면 부채를 고르고, 주식이 보이면 가장 후순위인지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본조달순서이론은 내부유보자금 → 부채 → 주식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15. 경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고정적 성과급제를 통한 조직관리를 강조하였다.

② 페이욜(H. Fayol)은 중요한 관리활동으로 계획수립,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등을 제시하였다.

③ 바나드(C. Barnard)의 학습조직이론에서는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의사결정자로 보았다.

④ 호손실험을 계기로 활발하게 전개된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작업집단만이 작업자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적 관리론과 행동과학 계열 이론에서 학자별 대표 개념과 관리활동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표준화, 차별적 성과급제 - 작업 수준의 능률 향상을 중시한 이론이다.
페이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 경영관리자의 보편적 관리기능을 체계화한 이론이다.
바나드: 협동체계론, 권한수용설 - 조직을 협동체계로 보고 구성원의 수용을 권한의 성립 조건으로 본다.
사이먼: 제한된 합리성 - 인간을 완전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의사결정자로 본다.
인간관계론: 호손실험, 비공식조직, 사회적 요인 - 생산성은 비공식집단과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고정적 성과급제가 아니라 차별적 성과급제를 강조하였다. 틀린 표현은 "고정적 성과급제"이다. 올바르게는 "차별적 성과급제와 과업의 표준화를 통한 작업관리"를 강조하였다.
② O: 페이욜은 관리자의 기본 기능을 계획수립,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로 정리하였다. 선지의 관리활동 나열이 페이욜의 관리과정론과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바나드의 학습조직이론"과 "제한된 합리성"의 연결이다. 바나드는 협동체계론과 권한수용설로 연결되는 인물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의사결정자는 사이먼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사이먼은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의사결정자로 보았다"이다.
④ X: 인간관계론은 공식적 작업집단만이 아니라 비공식집단, 인간관계, 사기와 같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공식적 작업집단만이"이다. 올바르게는 "비공식집단과 사회적 요인도 작업자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바나드와 사이먼의 핵심 개념을 섞어 놓은 선지이고, ④는 인간관계론의 핵심인 비공식조직을 지우고 공식집단만 남겨 놓은 선지이다. ①도 테일러의 차별적 성과급제를 고정적 성과급제로 바꾸어 헷갈리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이 보이면 먼저 대표 키워드를 1대1로 연결해 본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와 차별적 성과급제, 페이욜은 관리과정 5기능, 바나드는 협동체계와 권한수용설,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판단하면 대부분의 혼합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테일러=차별적 성과급제, 페이욜=관리 5기능, 바나드=협동체계, 사이먼=제한된 합리성,
인간관계론=비공식조직이다.

NoteBase

문 16.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인 그린필드투자(green-field investment)와 브라운필드투자(brown-field investment)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그린필드투자 - 새로운 기업의 설립
브라운필드투자 - 기존에 존재하는 현지 기업의 합병/인수

② 그린필드투자 -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브라운필드투자 - 제조업에 대한 투자

③ 그린필드투자 - IT/정보/콘텐츠/문화 등 지식 산업에 대한 투자
브라운필드투자 - 기존 굴뚝 산업에 대한 투자

④ 그린필드투자 - 정부/공공기관 주도의 직접 투자
브라운필드투자 - 순수 민간 주도의 직접 투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에서 그린필드투자와 브라운필드투자의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그린필드투자는 현지에 새로운 법인이나 생산시설을 처음부터 세우는 투자이다. 브라운필드투자는 기존 현지 기업이나 기존 설비를 인수·합병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이다. 두 개념을 가르는 기준은 신규 설립인지, 기존 기업 인수인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그린필드투자는 새로운 기업 설립이나 신규 공장 건설처럼 현지 기반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다. 브라운필드투자는 이미 존재하는 현지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여 시장에 들어가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그린필드투자-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브라운필드투자-제조업에 대한 투자"라는 업종 기준 구분이다. 두 투자 방식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 나뉘는 개념이 아니라 진입 방식으로 구분된다. 올바르게는 업종과 무관하게 신설이면 그린필드투자이고, 기존 기업 인수·합병이면 브라운필드투자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그린필드투자-IT/정보/콘텐츠/문화 등 지식 산업에 대한 투자, 브라운필드투자-기존 굴뚝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산업 성격 기준이다.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는 산업의 첨단성이나 전통성으로 나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산업 종류와 무관하게 새로 설립하면 그린필드투자이고, 기존 사업을 사들이면 브라운필드투자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그린필드투자-정부/공공기관 주도의 직접 투자, 브라운필드투자-순수 민간 주도의 직접 투자"라는 투자 주체 기준이다.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는 투자 주체가 아니라 투자 대상과 진입 방식으로 구분한다. 올바르게는 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신규 설립이면 그린필드투자이고, 기존 기업 인수면 브라운필드투자이다.

오답 포인트

서비스업·제조업, 첨단산업·전통산업, 정부·민간처럼 익숙한 분류축을 제시하면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투자 대상을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 점이며, 핵심 축은 업종이나 주체가 아니라 신규 설립 대 기존 기업 인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직접투자 유형 문제가 나오면 먼저 현지에서 새로 세우는지, 이미 있는 기업을 사들이는지부터 본다. 새로 설립하면 그린필드투자이고, 기존 기업 인수·합병이면 브라운필드투자이다.

암기 포인트

그린필드투자는 빈 땅에 새로 세우는 투자이고, 브라운필드투자는 이미 있는 회사를 사서 들어가는 투자이다.

NoteBase

문 17. 신제품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품 출시 초기 높은 가격에도 잠재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경우 스키밍 가격전략(market-skimming pricing)이 효과적이다.

② 목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market-penetration pricing)이 효과적이다.

③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market-penetration pricing)이 많이 활용된다.

④ 특허기술 등의 이유로 제품이 보호되는 경우 스키밍 가격전략(market-skimming pricing)이 많이 활용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키밍 가격전략과 시장침투 가격전략의 적용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키밍 가격전략은 출시 초기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높은 지불의사가 있는 수요층에서 이익을 먼저 회수하는 전략이다. 키워드는 높은 초기가격, 제품 차별화, 특허 보호, 경쟁 진입 어려움이다.
시장침투 가격전략은 출시 초기에 낮은 가격을 책정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키워드는 높은 가격민감도, 대량판매, 규모의 경제, 경쟁 억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높은 가격에도 잠재수요가 충분하면 초기 고가격 전략인 스키밍이 효과적이다.
② O: 목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으면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적합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많이 활용된다'는 부분이다.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자 진입이 어렵다면 굳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작아 스키밍 가격전략이 더 잘 맞는다. 올바르게는 경쟁자 진입 가능성이 크거나 낮은 가격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 경쟁을 억제하려는 경우 시장침투 가격전략이 활용된다.
④ O: 특허기술 등으로 제품이 보호되면 모방과 경쟁 진입이 제한되므로 스키밍 가격전략을 쓰기 유리하다.

오답 포인트

시장침투 가격전략은 저가로 수요를 넓히고 경쟁 진입을 억제할 때 쓰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조건과 연결하면 개념이 뒤집힌다. 진입장벽이 이미 높다면 저가 방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을 보면 먼저 높은 가격으로 초기이익을 회수하는 전략인지, 낮은 가격으로 점유율을 넓히는 전략인지를 가른다. 특허·차별화·경쟁 진입 어려움은 스키밍, 가격민감도 높음·대량판매·경쟁 억제는 시장침투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스키밍은 고가·초기이익 회수, 시장침투는 저가·시장점유율 확대이다.

NoteBase

문 18. 재고관리의 P시스템(P-모형)과 Q시스템(Q-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Q시스템은 P시스템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안전재고가 필요하다.

② P시스템에서는 주문시점마다 주문량이 달라지지만 Q시스템에서는 주문주기가 고정된다.

③ 투-빈(two-bin)법은 재고량을 절반으로 나누어 안전재고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P시스템의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다.

④ Q시스템은 현재의 재고량을 수시로 조사하여 재주문점 도달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관리부담이 많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P시스템과 Q시스템의 핵심 차이인 주문시점, 주문량, 안전재고, 관리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P시스템은 일정한 기간마다 재고를 점검하고 그때마다 부족분을 주문하는 정기발주방식이다. 키워드는 주문주기 고정, 주문량 변동이다.
Q시스템은 재고가 재주문점에 도달할 때마다 일정량을 주문하는 정량발주방식이다. 키워드는 주문량 고정, 주문시점 변동이다.
두 방식의 구별축은 무엇이 고정되는가이다. P는 주문주기가 고정되고, Q는 주문량이 고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Q시스템이 아니라 P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안전재고를 필요로 한다. P시스템은 다음 정기점검 시점까지의 수요 불확실성까지 버텨야 하므로 보호기간이 길다. 틀린 표현은 "Q시스템은 P시스템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안전재고가 필요하다"이다. 올바르게는 "P시스템은 Q시스템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안전재고가 필요하다"이다.

② X
P시스템에서는 주문주기가 고정되고 주문량이 매번 달라진다. 반대로 Q시스템에서는 주문량이 고정되고 재주문점 도달 시점에 따라 주문시점과 주문주기가 달라진다. 틀린 표현은 "Q시스템에서는 주문주기가 고정된다"이다. 올바르게는 "Q시스템에서는 주문량이 고정되고 주문주기는 변동된다"이다.

③ X
투-빈법은 재고를 두 구획으로 나누어 한 구획이 소진되면 재주문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Q시스템의 재주문점 개념을 시각화한 것이다. 또한 두 구획이 반드시 절반씩 나뉘는 것도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절반으로 나누어"와 "P시스템의 내용을 시각화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두 구획으로 나누어 재주문점을 관리하는 Q시스템의 시각적 운영방법"이다.

④ O
Q시스템은 재고수준을 계속 관찰하다가 재고가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즉시 주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재고량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므로 관리부담과 감시비용이 큰 편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P와 Q의 고정요소를 서로 뒤바꾸고, 투-빈법을 P시스템과 연결해 혼동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주문주기 고정"과 "주문량 고정"을 바꿔 읽으면 ②와 ④를 함께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엇이 고정되는지를 본다. 주문주기가 고정되면 P시스템이고, 주문량이 고정되면 Q시스템이다. 이어서 연속감시와 재주문점이 나오면 Q시스템, 정기점검과 주문량 변동이 나오면 P시스템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P는 Periodic이라 주문주기 고정, Q는 Quantity라 주문량 고정이다. 투-빈법은 Q시스템의 재주문점 관리 방식이다.

NoteBase

문 19. 100%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X회사와 Y회사의 현재 기업가치는 각각 70억 원, 30억 원이다. X회사가 Y회사를 합병하여 XY회사가 탄생하면 합병 후 기업가치는 1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X회사의 Y회사 인수가격이 40억 원일 경우 X회사의 입장에서 합병의 순현가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10억 원

② 20억 원

③ 50억 원

④ 80억 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병 시너지와 인수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X회사 주주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X회사 현재가치 70억 원, Y회사 현재가치 30억 원, 합병 후 기업가치 120억 원, X회사의 Y회사 인수가격 40억 원이다.
구해야 할 값: X회사 입장에서의 합병 순현재가치이다.
주의할 조건: 합병 시너지 전체와 X회사가 실제로 가져가는 몫은 다르며, Y회사에 지급한 프리미엄을 차감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합병 시너지 = 합병 후 기업가치 - 합병 전 두 회사 가치의 합이다.
X회사의 순현재가치 = 합병 시너지 - 인수 프리미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합병으로 새로 생긴 가치 중에서 Y회사 기존 주주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X회사 주주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합병 시너지는 120 - (70 + 30) = 20억 원이다.
2. 인수 프리미엄은 40 - 30 = 10억 원이다.
3. 따라서 X회사의 순현재가치는 20 - 10 = 10억 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X회사의 순현재가치는 10억 원이므로 옳다.
② X: 20억 원은 합병 전체 시너지 값이다. 틀린 표현은 X회사의 순현재가치를 시너지 전체와 같게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Y회사에 지급한 프리미엄 10억 원을 차감한 10억 원이다.
③ X: 50억 원은 합병 후 기업가치 120억 원에서 X회사 기존 가치 70억 원만 뺀 값으로 착각할 때 나오는 수치이다. 틀린 표현은 합병 순현재가치를 단순 증가분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시너지 20억 원에서 프리미엄 10억 원을 뺀 10억 원이다.
④ X: 80억 원은 합병 후 기업가치 120억 원에서 인수가격 40억 원을 뺀 값으로 착각할 때 나오는 수치이다. 틀린 표현은 합병 후 잔여가치를 순현재가치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기존 기업가치와 지급대가를 구분해 순증가분만 계산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합병 후 총기업가치 120억 원, 합병 시너지 20억 원, X회사 주주의 순현재가치 10억 원을 서로 같은 값으로 혼동하기 쉽다. 특히 인수가격 40억 원에는 Y회사 본래 가치 30억 원과 프리미엄 10억 원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20억 원을 정답으로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병가치 계산 문제는 먼저 합병 전 총가치와 합병 후 가치를 비교해 시너지를 구하고, 그다음 인수가격에서 피인수기업의 독립가치를 뺀 프리미엄을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X회사 순현재가치 = 합병 시너지 - 인수 프리미엄이다.

NoteBase

문 20. 홍길동은 다속성태도모형에 기반해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해당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속성별 브랜드의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브랜드의 속성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은 홍길동의 자동차 선택과 관련된 속성의 중요도 및 각 속성별 브랜드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홍길동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제품 속성		
		가격	성능	스타일
중요도		0.5	0.3	0.2
속성별 평가	A 브랜드	4	6	8
	B 브랜드	5	5	6
	C 브랜드	3	7	6
	D 브랜드	4	7	5

① A 브랜드

② B 브랜드

③ C 브랜드

④ D 브랜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다속성태도모형에서 속성 중요도와 브랜드별 평가점수를 가중합하여 가장 선호되는 브랜드를 고르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중요도는 가격 0.5, 성능 0.3, 스타일 0.2이다.
브랜드 평가는 A가 4, 6, 8이고 B가 5, 5, 6이며 C가 3, 7, 6이고 D가 4, 7, 5이다.
구해야 할 값은 각 브랜드의 총태도점수와 그중 최댓값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다속성태도모형의 총태도점수는 $A_j = \sum w_i b_{ij}$이다.
이 공식은 각 속성의 중요도와 해당 브랜드의 속성평가를 곱한 뒤 모두 더해 전체 선호도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된다.

계산 과정

A 브랜드는 $0.5 \times 4 + 0.3 \times 6 + 0.2 \times 8 = 2.0 + 1.8 + 1.6 = 5.4$이다.
B 브랜드는 $0.5 \times 5 + 0.3 \times 5 + 0.2 \times 6 = 2.5 + 1.5 + 1.2 = 5.2$이다.
C 브랜드는 $0.5 \times 3 + 0.3 \times 7 + 0.2 \times 6 = 1.5 + 2.1 + 1.2 = 4.8$이다.
D 브랜드는 $0.5 \times 4 + 0.3 \times 7 + 0.2 \times 5 = 2.0 + 2.1 + 1.0 = 5.1$이다.
총태도점수는 A 5.4, B 5.2, C 4.8, D 5.1이므로 가장 높은 브랜드는 A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A 브랜드의 총태도점수는 5.4로 네 브랜드 중 가장 높다. 가격 중요도가 가장 큰 0.5이므로 가격과 스타일 점수가 고르게 반영된 A가 최종 1위가 된다.
② X: B 브랜드의 총태도점수는 5.2로 A보다 낮다. 틀린 판단은 B 브랜드를 최선호 브랜드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B 브랜드는 2위이다.
③ X: C 브랜드의 총태도점수는 4.8로 가장 낮다. 틀린 판단은 성능 점수 7만 보고 C를 선택하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가격 중요도가 더 커서 낮은 가격 점수 3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④ X: D 브랜드의 총태도점수는 5.1로 B보다도 낮다. 틀린 판단은 성능 7점 때문에 D가 1위라고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D 브랜드는 3위이고 정답 브랜드는 A이다.

오답 포인트

성능 점수만 보고 C나 D를 고르면 오답이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가장 높은 속성점수가 아니라 중요도를 곱한 가중합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가격 중요도 0.5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속성태도모형 문제는 먼저 중요도 합과 각 속성의 가중치를 확인하고, 그다음 각 브랜드에 대해 중요도×평가점수를 계산한 뒤 총합을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다속성태도모형은 높은 속성점수 하나가 아니라 중요도와 평가의 가중합이 승부를 결정한다.

NoteBase